

근대 무신론의 철학적 기원*

—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와 피에르 벨을 중심으로 —

김 응 중

- I. 머리말
- II.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
- III. 벨의 자연주의
- IV. 이성주의와 신앙주의
- V. 철학, 무신론의 도구
- VI. 맺음말

I. 머리말

‘무신론(無神論)’은 혼란스러운 용어이다. 글자 그대로의 무신론자 즉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등장한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나름대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신을 믿는 무신론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유명한 사례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일 것이다. 멜레투스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도시가 믿는 신이 아니라 다이모니아를 믿도록 가르친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멜레투스는, 처음에는, 다이모니아를 새로운 ‘신’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소크라테스는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순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그는 소크라테스의 ‘신’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태양은 돌덩어리요 달은 흙에 불과하다고 말한 아낙사고라스와 다르지 않은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라는 고소를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그리고 “자기 내부에 있는 신의 지시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¹⁾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었지만 그의 신은 진정한 신으로 인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27-A00129).

1) Michael J. Buckley, *At the Origins of Modern Atheism*(Yale University Press,

정받지 못해서 무신론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스도교도 공인되기 전에는 비슷한 운명을 면하지 못했다. 2세기 중엽, 그리스도교의 한 순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심지어 무신론자라고도 불렸다. 우리는 당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 앞에서는 무신론자임을 고백하지만, 진정한 신과 관련해서는 아니다.”²⁾ 그리스도교도들도 자기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신론자라고 비난 받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비난 받은 경우가 많았다.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다른 신’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내부의 ‘이단들’, 다시 말해 교회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던 그 불쌍한 이단들도 정통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신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받았다. 그 시대에는 아직 ‘무신론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냥 ‘이단’이나 ‘불경한 자’ 등으로 불렸을 뿐이다.³⁾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또는 권위 있는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토를 다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었다. 에라스무스, 몽테뉴, 데카르트 같은 지식인들은 본인들의 신앙고백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뤼시앵 페브르의 연구에 의하면, ‘무신론자’라는 말은 자기의 ‘적’ – 종교적이건 아니건 – 을 공격하는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무신론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무신론자들의 공통점은 신의 존재가 아니라 섭리의 개입을 부정한 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신이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운행에 자의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⁵⁾ 신이 존재하고,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더라도, 신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1987), p. 3.
 2) *Ibid.* p. 4에서 Justin Martyr, *First Apology*, 13을 재인용.
 3) David Wootton, “New Histories of Atheism”, Michael Hunter, David Wootton (ed.), *Atheism from the Reformation to the Enlightenment*(Clarendon Press, 1992), p. 25. 김응중, 「피에르 벨과 무신론」, 『프랑스사연구』 제18집(2008. 2).
 4) 뤼시앵 페브르, 『16세기의 무신앙 문제 - 라블레의 종교』, 김응중 옮김(문학과 지성사, 1996).
 5) Buckley, *At the Origins of Modern Atheism*, p. 10.

다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대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의미에서 무신론인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고대 세계 이래 존재해왔지만, 체계적인 ‘무신론’이 등장하는 것은, 뤼시앵 페브르에 의하면, 데카르트 이후이다.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심성적 도구”를 구비한 근대인들은 무신론을 체계화시키는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동안 무신론자라는 말은 비판과 비난의 도구였거나 ‘욕설’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서명과 자량”이 된 것이다.⁶⁾ 1686년에 장 르클레르는 지난 시대의 무신론자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비판했지만 이제는 철학과 역사적 비판의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말했다.⁷⁾ 유럽인들은 17세기 후반에 “의식의 위기”를 겪었다.⁸⁾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스피노자와 벨은 이같은 ‘위기’를 전 존재로 겪은 사람들이다. 스피노자는 당대에 이미 “가장 체계적인 무신론자”라는 평을 받았으며, 벨의 『역사적 비판적 사전』은 18세기 무신론자들의 ‘교본’이었다. 이 두 철학자의 ‘무신론’을 검토하여 근대 무신론의 발생 경로를 확인하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II.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

스피노자는 1632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가 그리스도교화 된 후 극렬해진 종교재판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피난 온 유대계 포르투갈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스피노자는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상업에 종사하기도 했으나 상인으로서의 경력은 오래 가지 못했다. 24살 때 스피노자는 아마도 성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일종의 이신론(理神論)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프랑스 자유 사상가들(libertins)의 영향을 받아, 신은 자연 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으로만 나타난다고 보았던 것이다.⁹⁾ 추방 이후, 스피노자는 벤투(Bento)

6) *Ibid.*, p. 27.

7) David Wootton, “New Histories of Atheism”, p. 49.

8) 폴 아자르, 『유럽 의식의 위기』, 조한경 옮김(민음사, 1990).

9) Spinoza, *Ethics*, edited and translated by G. H. R. Parkinson(Oxford University Press, 2000), “편자 서문”, p. 6.

라는 포르투갈어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인 바루흐(Baruch)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라틴어 이름인 베네딕투스(Benedictus)를 사용한다. 유대인들과의 교류가 끊기고 부터는 콜레지안트파(Collegiants)와 메노니트파(Mennonites)¹⁰⁾ 같은 평화주의적인 그리스도교인들과 교류했다. 스피노자는 이들과 특히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는데,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은 평생의 대작인 『에티카』가 “기학학적인 순서”에 따라 논증된 카르테지안적인 철학서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스피노자는 친구인 러우더바의 메이에르(Lodewijk Meyer)가 1666에 출판한 『철학, 성서해석자』 때문에 무신론자로 몰리자 한편으로는 메이에르의 책에 대한 분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방어책의 일환으로, 『에티카』의 집필을 중단했다. 대신 그는 신학자들의 편견을 고발하고 무신론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의 새로운 구상은 친구인 아드리안 쿠르바크(Adriann Koerbagh)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스피노자의 자연주의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글을 발표한 후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 1669년에 사망하자 구체화되었다.¹²⁾ 1670년, 스피노자는 비판적 성서 해석에 대한 칼뱅주의자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신학-정치론』을, 익명으로, 출판했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을 쓰기 위해 잠시 중단했던 『에티카』의 집필을 계속했는데, 그 사이에 그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1672년 공화주의파 지도자인 얀 더 비트(Jan de Witt)가 암살당하고, 오란예공 빌렘이 칼뱅주의자들에게 경도되자, 스피노자는 책의 출판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티카』는 스피노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677년에 출판되었다. 18세기 계몽시대에는 “유물론적 합리주의의 성전”이었으며, 19세기 초 독일 관념론자들에게는 “자연철학의 성전”이기도 했던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봉우리들 중 하나”

10) Collegiants는 1619년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파와 체세레파들이 세운 섹트로서, 소집단(collegia)으로 모여 사제 없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고, Mennonites는 창설자인 Meno Simons의 가르침에 따라 정치를 등지고 무저항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11) 책의 제목은 *Ethics Demonstrated in Geometrical Order*이다.

12) Spinoza,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in Complete Works with Translations by Samuel Shirley, edi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Michael L. Morgan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2), “편자 서문”, pp. 383-384.

가 탄생한 것이다.¹³⁾

스피노자의 철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선 분명히 밝힐 것은 이 글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그럴 능력도 없으며 관심도 없다. 이 글은 스피노자의 철학이 아니라 그의 “체계적인 무신론”에 초점을 맞추어 17세기 무신론의 양태(mode)를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토대 위에서 철학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17세기는 여전히 종교와 드잡이 하던 시대이며, 종교적인 문제의 해결이 그밖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카시러는 17세기가 신학적인 논쟁의 시대였음을 증언해준다.

17세기 형이상학의 체계적인 개념들은 모든 독창성과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학적 사유에 굳게 뿌리박고 있다. 데카르트와 말브랑쉬, 그리고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신의 문제와 독립해서 진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적 존재의 인식은 다른 모든 지적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인식의 최고 원리이기 때문이다.¹⁴⁾

『신학-정치론』의 주제는 책의 부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철학하는 자유는 신앙과 공화국의 평화를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같은 자유는 공화국의 평화와 신앙이 동반될 때가 아니고는 견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신학’에 관련된 글들과 ‘공화국’에 관련된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예언에 대하여”)부터 제15장까지는 ‘신학론’이고, 제16장부터 제20장까지는 ‘정치론’이다.¹⁵⁾ 스피노자에 의하면, 당시는 이성의 빛이 경멸받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원천으로 단죄되던 시대였으며, 인간의 상상력이 신의 가르침으로 간주되고, 경신(輕信)이 믿음으로 간주되던 시대였다.¹⁶⁾ 그러니 스피노자의 과제는 분명했다. 그것은 ‘이성’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스피노자는 두 단계로 이성의 지위를 회복시킨다. 첫 번째 단계는 이성을

13) 이정우, 『바루흐 스피노자, 《에티카》』, 이진경, 이정우, 심경호, 배병삼 외 지음, 『고전의 향연』(한겨레출판, 2007), 39쪽-43쪽.

14) E.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박완규 역(민음사, 1995), 214쪽. 폴 아자르도 당시는 “은통 인간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들뿐이었다.”고 말한다(폴 아자르, 『유럽 의식의 위기』 I, 10쪽).

15) 스피노자는 『에티카』를 완성한 후 『정치론』 집필에 나서나 완성하지 못한다.

16) Spinoza,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p. 391.

“신학의 시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피노자는 “성서는 이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철학과 관계가 없다”며¹⁷⁾ 철학과 성서, 이성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구분한다. 이성의 영역은 진실이고 신학의 영역은 복종이다. 신학은 인간이 복종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신학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해방된 이성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학의 영역을 심사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학의 원리를 이성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판단력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성이 마비된 대중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서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성서를 통해서 해독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판단력과 이성을 통해서 이해된다.¹⁸⁾ 이성은 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신의 빛”이다.¹⁹⁾ 이성의 판단이 최종심인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사용하여 성서를 해석하고 성서를 비판한다. 이제 성서는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다.²⁰⁾ 이성의 빛으로 조명할 때 성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성서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고 상호모순적이기도 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민중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혹은 자극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모자이크이기 때문이다. 성서기록자들은 성서상의 사건들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중적인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은 대중의 믿음을 신의 가르침이라고 혼동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을 신의 가르침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²¹⁾ 대중들은 경이로운 것을 좋아하며,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대중들은 자연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기적을 보고서야 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믿음을 가

17) *Ibid.*, p. 392.

18) *Ibid.*, p. 521.

19) *Ibid.*, pp. 521-522.

20) Richard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43.

21) Spinoza,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p. 514.

진다.

스피노자는 기적의 존재를 부정한다. 기적이란 자연적인 이성의 빛에 의해 알려진 과학적 원리로는 그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사건에 불과하다.²²⁾ 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스스로 만든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신의 본질, 신의 존재, 신의 섭리 등은 기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고정되고 불변적인 질서로부터 알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이 신의 영원함과 불변함을 증명해준다. 자연의 법칙이 바로 섭리(攝理)이다.²³⁾

성서는 민중의 기대와 기호에 맞게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서의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스피노자에 의하면, “죽어 있는 글자들”이고, 신의 말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²⁴⁾ 신의 말씀의 진정한 ‘글자’는 정신이기 때문에, 성서의 정신을 파악해야 한다. 오직 “이성과 철학만이” 성서의 정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이성으로 파악된 성서의 근본정신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성서는 상이한 이야기를 한다. 바울은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선업’이 아니라 ‘믿음’이 근본이라고 가르친 반면, 야고보는 ‘선업’이 근본이라고 가르쳤다. ‘선업’과 ‘믿음’, 종교개혁 당시 루터를 괴롭혔던 이 문제에 대해, 스피노자는 야고보의 손을 들어준다. 성서의 근본정신은 ‘선업’이라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선업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²⁵⁾ 나아가 스피노자는 바울도 성령의 증거는 오직 선업과 관계있기 때문에 선업을 “성령의 결실”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인다.²⁶⁾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선한 행동인가? 그것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성서의 신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벌주는 신이다.²⁷⁾ 자연의 빛으로 신이 있음을 알고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서를 몰라도 복을 받는다. 성서를 맹신하는 대중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²⁸⁾ 도덕적인 삶의 본질은 사랑이다. 성서의 본질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인

22) *Ibid.*, p. 446.

23) *Ibid.*, p. 445.

24) *Ibid.*, p. 521.

25) *Ibid.*, p. 516.

26) *Ibid.*, p. 525.

27) *Ibid.*, p. 441.

28) *Ibid.*, pp. 442-443.

데, 그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서의 근본정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²⁹⁾

『에티카』는 『신학-정치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윤리’는 ‘신학’의 토대이기 때문에, 『에티카』는 신학적인 문제부터 시작된다. 제1부 “신에 대하여”에서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 본질, 속성들을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한 다음, “부기(附記)”에서는 비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정리한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명제 11. 신 - 다른 말로 하면, 무수히 많은 속성들로 구성된 유일한 실체이며, 각각의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를 표현한다 - 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증명 만일 당신이 이것을 부정하면,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 그러므로 (공리 7에 의해), 그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명제 7에 의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³⁰⁾

신은 실체이고 실체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는 삼단논법이다.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를 증명했는가? 나름대로의 논리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동어반복 내지 말장난에 불과하다.³¹⁾ 그러나 철학적이진 않은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증명한 신의 본질과 속성은 무엇인가? 스피노자는 “부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상에서 나는 신의 본성과 성질을 설명했는바, 그것은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신은 유일하다는 것,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 신은 만물의 자유 원인이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 만물은 신 안에 존재하며 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신의 의지의 자유나 절대적이고 선한 기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절대적 본성, 즉 신의 무한한 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 등이다.

29) *Ibid.*, p. 508.

30) 공리 7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상될 수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이고, 명제 7은 “존재는 실체의 속성에 속한다”이다.

31) Spinoza, *Ethics*, edited and translated by G. H. R. Parkinson, “편자 서문”, p. 27.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은 만물의 원인이며 만물은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교의 ‘창조’와는 사뭇 다르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만물은 신으로부터 발현한다. 신은 만물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만물 안에 들어 있고, 만물은 신 안에 들어 있다. 이러한 ‘범신론’은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이다.³²⁾

스피노자의 신은 본성에 의해서 행하지 목적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한다면 그것은 신이 무엇인가를 결핍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완전한 존재라는 신의 정의에 어긋난다.³³⁾ 마찬가지로, 완전한 신은 ‘감정’이 없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는가? 스피노자는 제5부의 명제 17 (“신은 정열이 없으며, 기쁨이나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을 증명한 후, 다음과 같이 추론(corollary)한다.

엄격히 말해서, 신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앞의 명제에 의해서) 기쁨이나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의 정의 6과 7에 의해) 신은 누구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신의 존재와 속성을 증명했다. 여기에서 증명의 타당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주목할 것은 17세기 한 철학자의 증명 방식이며, 그의 신은 그리스도교의 신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자연과 동일하다. “신 즉 자연”인 것이다.³⁴⁾ 완전한 존재인 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달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신은 무심하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필연적으로 행할 뿐이다. 그것은 ‘자연’ 혹은 ‘자연의 법칙’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 스피노자가 아무리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해도, “신에 미쳐 있었다”고 해도,³⁵⁾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도 항변해도, 그

32) 만물에는 신이 들어 있다는 사상을 범신론(pantheism), 만물이 신 안에 들어 있다는 사상을 만유재신론(panentheism)이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논의에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Alan Donagan, *Spinoza*(New York: Harvester, 1988), pp. 90-91 참고.

33) Spinoza, *Ethics*, p. 109.

34) 이것을 “신 혹은 자연”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신과 자연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치명적인 오해를 초래한다.

35) 1790년대에 Lichtenberg, Novalis, Herder, Schleiermacher 등은 스피노자에 열광했

리스도교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III. 뱀의 자연주의

피에르 뱀은 1647년 피레네 산맥 기슭에 있는 푸아 지방의 카를라에서 위그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위그노로 개종했는데, 당시 프랑스에서 재개종자는 범법자였기 때문에 주네브로 도피해 철학 공부를 계속했다. 스당에서 잠시 철학 교수를 한 후 1681년에 로테르담의 ‘명문학교’의 역사와 철학교수로 초빙되어 줄곧 이곳에서 살다가 1707년에 세상을 떠났다.³⁶⁾

뱀이 살던 시기는 프랑스에서 1598년 낭트칙령으로 마련된 종교적 평화가 깨지고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재개되던 시기였다. 박해는 1685년 퐁텐블로 칙령으로 극에 달했는데, 퐁텐블로 칙령은 단순히 낭트칙령을 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그노에게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한 야만적인 칙령이었다. 강제개종을 거부하고 도피하다 발각되면 처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수 만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망명을 떠났다. 피에르 뱀이 살고 있던 로테르담에도 위그노 망명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뱀은 논쟁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톨릭의 광신주의를 비판했다. 그러나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톨릭과 위그노 양쪽으로부터 무신론자라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에는 로테르담의 ‘명문학교’로부터 쫓겨나고 말았다. 가톨릭 광신주의뿐만 아니라 칼뱅과 광신주의로부터도 박해를 받은 것이다. 뱀의 경이로운 대작인 『역사적 비판적 사전』(1695)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작성되었다. 뱀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가해지는 ‘무신론자’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문을 썼다. 무신론에 대한 뱀의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책은 『혜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의 보충』, 『다

으며, 스피노자를 “신에 중독된 철학자”라고 불렀다(로저 스크러턴, 『스피노자』, 정창호 옮김(시공사, 2000), 73쪽.

36) 피에르 뱀의 전기에 대해서는 김응중, 「피에르 뱀과 무신론」, 『프랑스사연구』 제18호(2008. 2), 31-57쪽. Elisabeth Labrousse, *Pierre Bayle*, t. I, *Du pays de Foix à la cité d'Erasmus*(M. Nijhoff, 1963) (2e éd., M. Nijhoff, 1985). Elisabeth Labrousse, *Pierre Bayle*, t. II, *Hétérodoxie et Rigorisme*(M. Nijhoff, 1964) (2e éd., A. Michel, 1996). Hubert Bost, *Pierre Bayle*(Paris: Fayard, 2006).

양한 생각들의 계속』 그리고 『한 시골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³⁷⁾

무신론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1680년에 출현한 혜성이다. 무지한 대중은 혜성을 신의 경고라고 해석한다. 그들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보다는 희생제를 지내는 등 이상숭배적인 이교의 관습을 재현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민중의 미신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다. 미신적 관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앙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벨의 ‘이성’에 의하면, 혜성은 신이 인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낸 사자(使者)가 아니다. 혜성이 출현하면 대중은 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인 이상숭배에 빠지고 마는데, 예언자를 보내 이상숭배를 금했던 신이 혜성을 보내 이상숭배를 부추겼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³⁸⁾ 그러면 혜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는 물체”일 뿐이다.³⁹⁾ 스피노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벨에게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기적 같은 것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혜성은 “자연의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규칙적인 작품들, 일식들, 지진, 폭풍우,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을 보고도 신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⁴⁰⁾

벨이 대중의 이상숭배 관행을 비판한 것은 그러한 대중의 관행을 부추기는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다음, 벨은 이상숭배와 무신론을 비교하면서 무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는다. 무신론을 옹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벨의 논리는 매우 조심스럽다. 이 대목에서 벨의

37) 이 네 권의 책은 *Oeuvres diverses*라는 제목으로 1727년에 헤이그에서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책들에서 발췌한 구절들로 엮은 *Pensées sur l'athéisme*, Edition présentée, établie et annotée par Julie Boch(Desjonquères, 2004)를 참고했다. 『혜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Pensées diverses sur la comète*)(1682)는 가톨릭의 이상숭배 관행을 비판하면서 무신론을 옹호한 책이고, 『다양한 생각들의 보충』(*Addition aux Pensées diverses*)(1694)는 칼뱅과 신학자이며 목사인 피에르 쥐리외의 비판에 대한 반박문이다. 『다양한 생각들의 계속』(*Continuation des Pensées diverses*)(1704)는 『역사적 비판적 사전』이 회의주의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며, 『한 시골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Réponse aux questions d'un provincial*)(1705)은 이성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에 대한 답변이다.

38) *Pensées sur l'athéisme*, p. 56.

39) *Ibid.*, p. 42.

40) *Ibid.*, pp. 59-60.

획기적인 논거는 무신론과 도덕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배적인 논리는 무신론자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서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벨의 동시대인인 로크도 이러한 시대적 한계에서 벗어 나지 못해 관용의 대상에서 무신론자들을 제외했다.⁴¹⁾ 그런데 벨은 “무신론이 필연적으로 도덕의 타락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⁴²⁾ 벨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기시대의 신앙인들과, 디아고라스, 에피쿠로스, 중국의 철학자들, 그리고 동시대의 스피노자 같은 고결한 무신론자들을 대조시킨다. 벨에 의하면, 자비심, 검소함, 순수함 등은 신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질, 교육, 개인적인 이해, 욕망, 이성의 본능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³⁾ 도덕은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도덕은 자연에서 나온다. 벨은 자연을 “일반적인 섭리”라고 부른다.⁴⁴⁾ 이렇게 무신론자도 도덕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은 더 우월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교인들과 달리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덕을 실천하기 때문이다.⁴⁵⁾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이성, 혹은 “철학적 이성”이다.⁴⁶⁾ 종교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성은 오로지 신의 무한한 완벽함 때문에 신을 사랑하고 신의 법에 복종하도록 해준다. 신을 알지 못해도, 이성은 유용함 때문이 아니라 이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직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는 이러한 점에서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대중과 다르다.⁴⁷⁾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은 수(數)가 아니다. “민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라는 속담이 있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대중이 혜성을 신의 전조라고 보아도 그것은 전조가 아니다. 철학적인 문제를 다수결로 결

41) 김용중, 「존 로크와 피에르 벨의 관용론 - ‘관용’을 넘어 양심의 자유로 -」, 『프랑스사 연구』 19호(2008. 8), 105-128쪽. 벨의 관용론에 대한 풍부한 논의로는, 장세룡, 「피에르 벨의 관용론-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의 권리로-」, 『서양사론』 제99호(2008. 12), 5-35쪽.

42) *Pensées sur l'athéisme*, p. 78.

43) *Ibid.*, p. 88.

44) *Ibid.*, p. 95.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벨은 가톨릭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말브랑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벨의 자연주의는 말브랑쉬의 occasionalisme과 크게 다르지 않다.

45) *Ibid.*, p. 24.

46) *Ibid.*, p. 48.

47) *Ibid.*, p. 111.

정할 수는 없다.⁴⁸⁾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벨은 이제까지 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유력한 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⁴⁹⁾ 벨은 다수의 동의가 신의 존재의 증거라면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가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⁵⁰⁾ 신의 존재 여부는 수(數)가 아니라 이성으로 증명해야 한다.

제1원리와 만물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비(非)무신론의 증거가 아니다. [...] 고대인들 가운데 스트라톤과 몇몇 무신론 철학자들, 현대인들 가운데는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도 제1원리를 인정했다. 그러므로 무신론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최초의 존재는 발현이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세상을 창조한 행동은 내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 그는 자연적인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움직인다는 것,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그로 하여금 사물의 자연적인 운행을 바꾸도록 한다는 것.⁵¹⁾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만물을 창조한 신이며, 초월적인 신이다. 그리고 신은 전지전능하고 자유로운 존재여서 자신이 만든 자연의 법칙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자신 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벨이 생각하는 유신론자들의 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창조자 신,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은, 형성의 예에서 보았듯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은 자신이 만든 법칙을 어길 수도 있지만 어기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벨의 신은 “게으른 신(dieux oisifs)”이다.⁵²⁾ 신은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 섭리 같은 것은 없다.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48) *Ibid.*, p. 49.

49) *Ibid.*, p. 127. 17세기에 신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는 “보편적인 동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제1원리의 존재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David Wootton, “New Histories of Atheism”, pp. 22-3).

50) *Ibid.*, p. 132.

51) *Ibid.*, p. 134.

52) *Ibid.*, p. 147. “게으른 신”은 홉스의 “숨은 신”, 유물론자이며 무신론자인 디드로의 “무관심한 신”, 울바크의 “등돌린 신”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신론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도그마로 압축될 수 있다. 자연은 만물의 원인이다. 자연은 영원히 존재하며 스스로 존재한다. 자연은 언제나 그 힘이 미치는 모든 범위에서 그리고 자연이 알지 못하는 불변의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므로, 자연이 행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인간의 노력은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그것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모든 것은 불가피한 필연성에 의해 일어난다.⁵³⁾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을 연상시킨다. 스트라톤은 기원전 4세기 말과 3세기 초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자연은 메카니즘의 체계로 움직이는 보편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본 물질주의자이다. 벨은 이 “물리학자”를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꼽고 있는 것이다. 벨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예상을 깨고, 혹은 우리의 예상대로, 스피노자의 유일 실체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데, 스트라톤주의는 유일 실체론이 삭제된 스피노자주의이다.⁵⁴⁾

벨은 이렇게 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종교가 없어도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사회는 종교가 없어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종교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사회에 더 해롭다고도 말하고, 종교를 독약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신론의 조건을 열거하면서도, 고결한 무신론자들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무신론자인지 말하지 않는다. 사실,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선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스피노자도 스스로는 무신론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던가? 그 당시에 무신론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다. 벨은 다음과 같이 신앙고백을 한다.

나는 언제나 진정한 교회의 이익을 보호해 왔다. 진정한 교회는, 개혁교도들의 신앙고백에 의하면, 신의 말씀과, 이것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위에서 언제나 발전하고 있는 순수한 교회를 따르기로 약속한 신도들의 공동체이다. 신도들 혹은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그리스도의 배우자이며 진정한 덕성과 신앙심의 본부이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고 교회분열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아무리 심해도 말이다.⁵⁵⁾

벨은 자신이 위그노 즉 칼뱅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 전쟁

53) *Ibid.*, p. 153.

54) Gianluca Mori, *Bayle Philosophe*(Editions Champion, 1999), p. 187.

55) *Pensées sur l'athéisme*, p. 194.

시대에 나온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벨의 진술에서도 교회 앞에 붙어 있는 “진정한”, “순수한” 같은 형용사는 벨이 칼뱅파와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철학자 벨은 스피노자와 스트라톤과 같은 자연주의자였다. 그에게는 자연의 질서가 바로 섭리였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벨에게도 신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신은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다른 신이었다. 그러니 그가 가톨릭과 칼뱅파 양쪽으로부터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IV. 이성주의와 신앙주의

“신 즉 자연”과 ‘자연주의’는 결국 같은 이야기이다. 두 철학자에 의하면, 신은 만물과 별도로 초월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신에게서 발현된 것으로 신에 내재적으로 존재한다. 신은 자의적으로 자연에 개입하여 자연의 운행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신의 섭리는 없다. 자연의 법칙이 바로 섭리이다. 두 철학자가 생각하는 종교는 도덕적이다. 믿음과 선업의 문제에서 스피노자는 선업을 종교의 근본으로 보며, 벨은 종교와 도덕은 별개의 것으로 본다. 무신론자도 도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벨은 동시대의 고결한 무신론자로 스피노자를 꼽는다.

벨은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두 철학자는 무신론적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벨은 스피노자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벨은 1677년에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이 종교에 대해 “참으로 무례하게” 다루었다고 썼다.⁵⁶⁾ 『역사적 비판적 사전』에서는 장문의 “스피노자”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스피노자의 종교와 철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했다.⁵⁷⁾ 벨에 의하면, 스피노자는 “스스로도 무신론을 확신한” “체계적인 무신론자”이다. 『신학-정치론』은 “그의 사후에 나온 책 [『에티카』]에서 완전히 받아하는 무신론의 모든 씨앗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유해하고 가증스러운 책”이다. “무신론의 모든 가설들 가운데 스피노자의 것은 사람들을 가장 덜

56) Hubert Bost, *Pierre Bayle*, p. 137.

57) 여기서는 Pierre Bayle, *Historical and Critical Dictionary*, Selection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ichard H. Popkin(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1)을 사용했다. “Spinoza” 항목은 무려 50쪽(pp. 288-338)으로서 『역사적 비판적 사전』의 1200여 항목들 가운데 가장 길다.

오도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의 가설은 인간 정신의 가장 명백한 개념들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의 독약은 해독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설에도 불구하고, 벨은 스피노자가 하느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결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인정한다. 철학적인 차원에서, 로테르담의 철학자는 암스테르담의 철학자의 일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실체(substance)가 있으며, 그 실체는 신(神)이고,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만물은 신의 양태(mode)라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의 글을 읽는 것보다 쓸모없는 일은 없다.” 터키인들도 신의 양태이고 헝가리인들도 신의 양태라면, 터키인과 헝가리인이 싸우는 것은 똑같은 신과 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⁵⁸⁾

벨이 이렇게 가혹하게 스피노자의 종교와 철학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벨의 ‘저항’ 기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벨은 폴리냐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선량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해진 모든 것과 행해진 모든 것에 대해 전심전력 프로테스탄트했기 때문입니다.”⁵⁹⁾ 자기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뒤집는 벨 특유의 어법이다. 벨은 “오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⁶⁰⁾ 벨이 사전의 제목을 『역사적 비판적 사전』으로 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벨은 뛰어난 논쟁가였다. 동시대인인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의 주장을 하면 벨은 그 주장을 분석한 다음, 질문을 던진다. 그가 그 주장을 철회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 벨은 다시 이 주장을 분석하고 질문을 던진다. 이같은 비판적인 분석은 상대방이 있는 한 끝없이 계속된다.⁶¹⁾ 벨은 회의주의자였던 것이다. 팝킨에 의하면,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였다. 그의 비판을 면한 것은 하나도 없다.

벨이 회의주의자라면 스피노자는 이성주의자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의 능력을 확신했다.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와 속성은 오로지 이성으로만 알 수 있다

58) 카시러에 의하면, “벨의 설명과 비판은 스피노자주의에 대한 논의를 일면적이고 잘못된 관점으로 이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E.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250쪽).

59) Hubert Bost, *Pierre Bayle*, p. 502.

60) “진리에 대한 회의보다 더욱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오류에 대한 증오심”(폴 아자르, 『유럽 의식의 위기』 II, 139 쪽).

61) Richard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p. 289. 디드로는 논증술에 있어서 벨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으며 벨에 맞먹을 만한 사람도 거의 없다고 말한다(E.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218쪽).

고 말한 이성주의 철학자이다.⁶²⁾ 스피노자에게는 이성에 부합하게 삶으로써 생기는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신앙심’이며 진정한 덕(virtue)이었다.⁶³⁾ 스피노자는 이삭 라페레르(Issac La Peyrère)의 비판적 성서해석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종교에 적용한 최초의 인물이다.⁶⁴⁾ 그는 종교적 지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의주의적이었으나 형이상학이나 수학과 같은 이성적 지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反)회의주의적이었다. 그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계시 종교를 ‘부정’했다. 그 결과 스피노자는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의 책은 네덜란드에서는 드물게 금서가 되었다. 스피노자는 자기의 철학이 참된 철학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회의주의는 신에 대한 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나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회의주의자를 정신적인 맹인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회의주의는 무지의 결실이였다. 스피노자의 “인식론적 도그마주의”는 17세기 철학자들의 회의주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다.⁶⁵⁾ 스피노자의 이성주의는 이신론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역사적 비판적 사전』의 벨은 스피노자의 과도한 이성주의를 비판한 것이다.⁶⁶⁾ 앞에서 벨을 회의주의자로 규정했지만, 무신론을 옹호할 때의 벨은 이성주의자이다. 벨의 이성주의는 1685년 루이 14세의 낭트칙령 폐지에 반대하여 출판한 『“억지로라도 들여보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학적 검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제개종 옹호자들은 『누가복음』 제14장에 나오는 “잔치 이야기”(“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를 근거로 루이 14세의 조치를 정당화시키는데, 벨은 이 구절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통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명백히 성서에 “억지로라도”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도 라페레르, 스피노자, 리샤르 시몽의 비판적 성서해석을 엿볼 수 있다. 제1부 제1장의 제목부터 분명하다. “자연의 빛은 우리 지식의 일반 원칙이며 성서해석의 모태적이고 근원적인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과

62) Spinoza, *Ethics*, edited and translated by G. H. R. Parkinson, “편자 서문”, p. 33.

63) *Ibid.*, p. 253.

64) Richard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p. 242.

65) *Ibid.*, p. 245.

66) *Ibid.*, p. 247. Paul Vernière, *Spinoza et la pensée française avant la Révolution* (Paris: PUF, 1982), pp. 305-306.

관련해서 그러하다.” “자연의 빛”은 “이성의 빛”이다. 이성이 모든 지식의 원천이요 원칙이며 기준이다. 성서도 이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성서는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고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성서도, 교회도, 기적도, 이성의 명백한 빛을 거역할 수 없다.”⁶⁷⁾

벨은 이성이 철학자의 무기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성의 한계에 대한 고심, 이성주의와 신앙주의의 갈등은 『역사적 비판적 사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피로(Pyrrho)” 항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피론주의자들(회의주의자들)의 이성주의를 비판한다.

피론주의자들과 논쟁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는 그들의 궤변을 이성의 힘만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성의 결함을 느끼게 해서 그들이 더 나은 인도자인 ‘믿음’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⁸⁾

‘이성’은 회의주의로 이끌고, 회의주의는 종교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하여 종교를 위협한다며 회의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의주의는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게 해주어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된다며 회의주의를 변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주목할만한 것은 벨이 이성주의에서 벗어나 ‘신앙주의(fideism)’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피에르 뷔넬(Pierre Bunel)”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이성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만 적합할 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만들면 즉시 그것을 부술 수단을 제공한다. 이성은 낮에 잤던 것을 밤에 풀어버리는 페넬로페와 같다. 따라서, 철학 연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철학은 인간을 오도하는 길이 때문에 우리는

67) Pierre Bayle, *De la Tolérance. Commentaire philosophique sur ces paroles de Jésus-Christ “Contrains-les-d’entrer”*, Préface et commentaires de Jean-Michel Gros(Presses Pocket, 1992), p. 87.

68) Pierre Bayle, *Historical and Critical Dictionary*, Selection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ichard H. Popkin, p. 204.

다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안내자, 그것은 계시의 빛이다.⁶⁹⁾

벨의 이성주의가 극단적이었던 것만큼이나 그의 신앙주의 역시 극단적이다. 이성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과 신앙의 방패”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⁷⁰⁾ 벨은 진정한 신앙주의자인가 아니면 무신론을 감추고 있는 신앙주의자인가? 엘리자베스 라부르스와 지안루카 모리 같은 벨 연구자들에게 의하면, 벨이 신앙주의를 권하는 표현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며, 동시대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⁷¹⁾ 비록 “믿음으로 이해한다”는 신앙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이기는 하지만, 벨의 신앙주의는 무신론적이라는 의심을 면하지 못하였다. 벨의 후견인이었다가 벨의 숙적이 된 피에르 쥐리외가 보기에도 신앙의 모든 원칙이 이성과 모순된다고 말한 프로테스탄트는 일찍이 없었다.⁷²⁾ 쥐리외는 신앙주의의 화신이었지만 그마저도 벨의 패배주의적 신앙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쥐리외는 벨의 『역사적 비판적 사전』에는 이단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무신론이 은폐되어 있으며, 건전한 도덕에 위배되는 쓰레기와 오물로 범벅되어 있다고 고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 르클레르, 자크 베르나르, 이삭 뒤클로 같은 이성주의 신학자들이 벨의 신앙주의를 의심하며 쥐리외와 합세했다. 이들은 벨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위협하는 신앙주의에 빠져 있으며, 이들 통해 자기의 불신앙을 감추고 있다고 비난했다.⁷³⁾

벨의 신앙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벨 연구자들도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라부르스는 벨의 신앙주의를 인정하지만, 지안루카 모리나 위베르 보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모리는 벨은 『역사적 비판적 사전』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스트라톤주의에 귀의할 정도로 오히려 이성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라부르스를 비판한다.⁷⁴⁾ 위베르 보스는 다음과 같이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여 벨을 해석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성을 믿음

69) *Ibid.*, p. 42.

70) *Ibid.*, pp. 177, 193. “파울주의자(Paulicians)” 항목.

71) Gianluca Mori, *Bayle Philosophe*, p. 237. 팝킨에 의하면, 볼테르도 벨의 신앙주의를 믿지 않았다(Richard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p. 290).

72) *Ibid.*, p. 256.

73) 김웅중, 『피에르 벨과 무신론』, 40쪽 참고.

74) Gianluca Mori, *Bayle Philosophe*, pp. 48-49.

의 수준에서만 침묵시킬 수 있을 뿐이다. 믿음과 이성 은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체제에 속한다. 벨은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성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주의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⁷⁵⁾

벨의 극단적인 신앙주의는 이성주의의 포기 위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한 신앙주의는 바로 자기의 종교를 박해하던 광신적인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앙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비이성적인 신앙은 벨이나 스피노자가 경멸한 대중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스피노자와 벨이 소중히 여긴 도덕주의적인 신앙과도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벨의 신앙주의는 이성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와 맹목적 신앙주의에 대한 공격의 양태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지 않을 까 싶다. 벨은 이성주의가 초래하는 회의주의의 늪에서 벗어나 신앙주의에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벨의 신앙주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절망에서 나온 비판주의의 표현일 것이다.⁷⁶⁾

V. 철학, 무신론의 도구

뤼시앵 페브르에 의하면, 무신론이 가능해지는 것은 17세기의 지식인들이 ‘철학’이라는 심성적 도구를 구비하면서부터이다. 스피노자와 벨은 ‘철학’의 힘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첫 번째 과제는 철학과 신학을 구분하여 철학을 신학의 시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과제는 철학의 범정에서 신학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철학자와 신앙인이 양립할 수 있지만, 17세기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 1694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은 ‘철학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철학자란 첫째, “과학을 연구하고 원인과 원칙을 토대로 과학적 결과를 규명하는 사람”, 둘째, “복잡한 세상사를 떠나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사람”, 셋째, “일상적 삶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자유사상가”이다.⁷⁷⁾ ‘철학자’의 세가지 의미는 스피노자와 벨에게 그대로 해당된다. 그들은 자연주의적인 학자였으며, 고결한 인문학자였고, 또 무신론적인 자유사상

75) Hubert Bost, *Pierre Bayle*, p. 515.

76) Pierre Bayle, *De la Tolérance. Commentaire philosophique sur ces paroles de Jésus-Christ “Contrains-les-d’entrer”*, 편자서문, p. 40.

77) 폴 아자르, 『유럽 의식의 위기』, I, 108-109쪽.

가였기 때문이다. 17세기에, 철학자와 계시종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로 살다가 철학자로 죽었다면 그는 무신론자로 죽었다고 믿어도 틀림없었다.”⁷⁸⁾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나돌던 필사본인 『부활한 테오프라스트스』(*Theophrastus redivivus*)의 저자는 모든 철학자들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했다.⁷⁹⁾ 벨은, 『역사적 비판적 사전』에 대한 왈롱 교회의 비판에 대한 『해명』(*Eclaircissements*)에서 “철학자들은 무신론자라는 의심을 받는다”며 대체로 동의했다.

왜냐하면 철학자는 본질적으로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벨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회의주의자인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저작이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⁸⁰⁾ 회의주의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비합리적인 종교의 토대를 심사하며 무너뜨린다. 벨은 신앙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성을 버릴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이성이 무신론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이다. 벨은 『역사적 비판적 사전』의 “우리엘 아코스타 Uriel Acosta”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철학의 속성에 대해 말했다.

철학은 부식성이 강해서 처음에는 부상자의 감염된 살을 먹어버리나 그 다음에는 살아 있는 살을 먹어치우고, 뼈를 썩게하고, 골수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가루약에 비유될 수 있다. 철학은 처음에는 잘못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공격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멀리가며, 멈출 수 없다.⁸¹⁾

철학자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자가 되기 쉽다. 철학과 신앙은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니 선택해야 한다. 벨은 『해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과 복음 가운데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당신이 확실한 것 그리고 공동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면 철학을 취하고 그리스도교를 버려라. 만일 당신이 종교의 불가해한 신비를 믿으려 한다면, 그리스도교를 취하고 철학을 버려라. 왜냐하면 확실한 것과 불가해한 것을 함께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8) *Ibid.*, p. 109.

79) David Wootton, “New Histories of Atheism”, p. 40.

80) Richard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p. xx.

81) Pierre Bayle, *Historical and Critical Dictionary*, Selection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ichard H. Popkin, p. xxi에서 재인용.

스피노자는 철학자였다. 그는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신은 오직 철학적으로만 존재한다”⁸²⁾며 그리스도교의 신과의 거리를 분명히 했다. 벨은 그 자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다. 벨은 유연적인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교인 철학자(philosophe chrétien)”라고 규정했다. 벨은 그리스도교인인가 아니면 철학자인가? 벨은 신앙과 철학 사이에서 고심하는 회의주의로서 ‘판단정지’를 한 것인가? 신앙주의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벨 연구자들은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지만, 벨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 “눈속임 신앙”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해 보고 있다. 벨은 본인의 거듭된 신앙고백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⁸³⁾

스피노자와 벨은 ‘철학자’였다. 철학자로서 그들은 종교의 근본을 비판했으며, 결과적으로 무신론으로 나아갔다.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를 증명했고, 벨은 “그리스도교인 철학자”임을 내세웠으나, 그것은 자기들의 참된 신앙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대인들은 그들이 무신론자임을 놓치지 않았으며,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은 그들을 무신론자의 계보에 올려놓았다. 두 철학자는 신학의 아성을 부수기 위해서 철학을 했다. 스피노자는, 신은 능동적이다, 감정은 마음의 수동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증명했는데, 이같은 자의적인 개념규정과 증명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의 속성을 부정하기 위함이었을 혐의가 짙다. 벨은 스피노자의 일원론을 비판하면서 실체는 하나이고 만물은 실체의 양태라면, 결과적으로 신적인 터키인들과 신적인 헝가리인들이 싸우는 셈이고, 그것은 같은 신이 같은 신과 싸우는 것이라며 스피노자의 실체론을 비판했는데, 이것 역시 프랑스의 종교전쟁, 독일에서의 30년전쟁과 같은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의 싸움에서 추론된 논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극단적으로 논리적이었다. 그는 신의 존재와 속성을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했다. 반면, 벨에게 있어서 철학의 의미는 정확성이었다.⁸⁴⁾ 카시리에 의하

82) Richard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p. 230.

83) “그리스도교인 철학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김용중, 『피에르 벨과 무신론』, 47-51쪽 참고. 엘리자베스와 지안루카 모리, 위베르 보스 가운데 모리가 가장 강력하게 벨의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에르 벨, 철학자』라는 책의 제목이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면, 벨은 “역사적 정확성의 창시자”였다.⁸⁵⁾ 벨에게는 사실이 인간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며 대상이었다. 『역사적 비판적 사전』에서 근대역사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VI. 맺음말

스피노자와 벨은 동시대의 철학자로서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이성의 힘으로 종교를 해석했으며, 신의 자의적인 개입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섭리’로 인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자연주의 철학자였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까지 했으나, 그 신은 그리스도교의 신과 달랐다. 그들이 생각한 종교는 도덕적인 종교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였다. 그리고 종교는 도덕과 무관하여 무신론자들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피노자와 벨이 그러한 고결한 무신론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당대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으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스피노자가 무신자임은 분명하다. 이미 그는 벨로부터 가장 체계적인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벨은 ‘신앙주의’를 표명했으며, 자신을 “그리스도교인 철학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그 역시도 무신론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8세기의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의 계보에 벨을 올려놓았다. 벨을 신앙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벨의 신앙주의는 그리스도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반복한 것이고, 그리스도교의 불합리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스피노자와 벨이 무신론자가 된 것은 그들이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오늘날과는 달리, 17세기에는 철학과 종교가 양립하기 어려웠다. 벨은 자신을 “그리스도교인 철학자”라고 말했으나, 그 역시도 철학과 종교 사이에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벨은 겉으로는 종교를 내세웠으나 내심으로는 철학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17세기의 철학이 종교와 양립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회의주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이

84) *Pensées sur l'athéisme*, p. 123.

85) E. 카시러, 『계몽주의 철학』, 275쪽.

성을 신학의 시녀로부터 해방시킨 다음, 이성의 범정에서 신학을 심판했다. 성서는 더 이상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었다. 이성의 빛으로 조명한 성서는 비이성적이고 오류투성이이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 즉 ‘이신론’을 주장했다. 스피노자와 벨은 이신론의 발전에 영향을 준 철학자들이다. 이신론은 ‘신’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신론과 무신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충남대 사학과)

〈투고일자: 2008. 12. 25. 심사일자: 2009. 2. 2. 게재확정일자: 2009. 2. 14〉

주제어 : 스피노자(Spinoza), 피에르 벨(Pierre Bayle), 자연주의(Naturalism), 철학(Philosophy), 이성(Reason), 무신론(Atheism), 이신론(Deism), 신앙주의(Fideism)

〈Résumé〉

**L'origine philosophique de l'athéisme moderne
– les cas de Benedictus de Spinoza et Pierre Bayle –**

Eung-Jong KIM

Cet article a pour but d'examiner le 'mode' particulier de l'athéisme des philosophes du 17e siècle comme Benedictus de Spinoza et Pierre Bayle, et de vérifier la relation génétique entre la philosophie et l'athéisme.

Spinoza et Bayle ont les perspectives philosophiques en commun. Ils ont interprété la religion au moyen de la 'raison', et considéré comme la Providence non pas l'intervention arbitraire du dieu tels que les miracles mais la Loi de la Nature. En ce sens, Ils sont philosophes naturalistes. Ils ont prouvé, l'existence du dieu, mais leur dieu est différent de celui du christianisme. Leur religion est moral du fait que l'homme est sauvé non pas par la foi mais par le bonne oeuvre. Ils insistent que les athées peuvent être morales parce que la religion n'est pas la seule origine de la moralité. En fait, Spinoza et Bayle sont les athées moraux. Il est naturel que les églises catholique et protestante les ont critiqués et condamnés comme athée dangereux.

Spinoza est undéniablement athée. Bayle l'a critiqué l'athée le plus systématique. En revanche, il n'est pas facile de conclure le cas de Bayle à cause de ses confirmations répétitives du fidéisme et de sa définition de lui-même comme "philosophe chrétien". Je partage l'opinion des athées de la Lumière qui ont enregistré Bayle sur la généologie des athées. Ainsi, il est trop simple pour le juger fideist. Son fideism devrait être interprété comme le double emploi du fidéisme chrétien traditionnel selon le quel la religion ne peut être compri par la raison. Je pense que Bayle a fait un détour pour souligner l'irrationalité du christianisme.

Ils sont devenus athées parce qu'ils sont philosophes. Au 17e siècle, la philosophie n'est pas compatible avec la religion. Même si Bayle a déclaré qu'il était "philosophe chrétien", il a su très bien qu'il a été obligé de choisir entre la philosophie et la religion. Son fidéisme m'est paru comme un simple déguisement. Il est philosophe sceptique.

L'incompatibilité de la philosophie du 17e siècle avec la religion provient de son scepticisme. Les philosophes ont libéré la raison du rang de la servante de la théologie, et ensuite jugé la religion dans la cour de la raison. La Bible n'est plus considérée comme la source du savoir mais comme son objet. La Bible examinée à la lumière de la raison est irrationnelle et erronée. Ils sont intéressés par le déisme qui attache de l'importance à la religiosité rationnelle. Spinoza et Bale peuvent être classés parmi les déistes. En dépit de l'apparence théiste du déisme, celui-ci n'est pas différent du athéisme, du point de vue de christianisme.

〈Summary〉

**The Philosophical Origin of the Modern Atheism
– the Cases of Benedictus de Spinoza and Pierre Bayle –**

Eung-Jong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articular ‘mode’ of the atheism of the 17th century philosophers, Benedictus de Spinoza and Pierre Bayle, and to verify the gene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osophy’ and the atheism.

Spinoza and Bayle had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s in common. They interpreted the religion by means of the ‘reason’, and considered the law of the nature instead of the God’s arbitrary intervention like the miracles to be the Providence. In this sense, they are naturalistic philosopher. They proved the existence of the God, but their Go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ristianity. Their religion is moral in that the humans are saved not by the faith but by the good works. They argue that the atheists can be moral because the religion isn’t the sole origin of the morality. In fact, Spinoza and Bayle were the moral atheists. It is natural that both the Catholic church and the Protestant church criticized and condemned them as dangerous atheist.

Spinoza is undeniably atheist. Bayle criticized him the most systematic atheist. On the other hand, it isn’t easy to conclude the case of Bayle due to his repetitive confirmations of the fideism and his self-definition as ‘christian philosopher’. I share the opinion of the atheists of the Enlightenment who listed Bayle in the atheist genealogy. So, it is too simple to judge him as fideist. His fideism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simple reuse of the traditional christian fideism that the religion can’t be grasped by the reason. I think that Bayle took the indirect route to emphasize the unreasonableness of the Christianity.

They became atheist because they were philosophers. In the 17th century, the philosophy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religion. Though Bayle declared that he was “christian philosopher”, he knew very well that he was obliged to choose between the philosophy and the religion. His fideism is thought to be only apparent. He was a

skeptical philosopher. The incompatibility of the 17th century philosophy with the religion issued from its scepticism. The philosophers liberated the reason from the status of the maid of the theology, and then judged the religion in the court of the reason. The Bible was no longer the source of the knowledge but its object. The Bible in the light of the reason is unreasonable and erroneous. They are interested in the deism which attached importance to the rational religiosity. Spinoza and Bayle can be classified among the deists. In spite of the theistic appearance of the deism, the deism isn’t different from the atheism, in the viewpoint of the christianism.